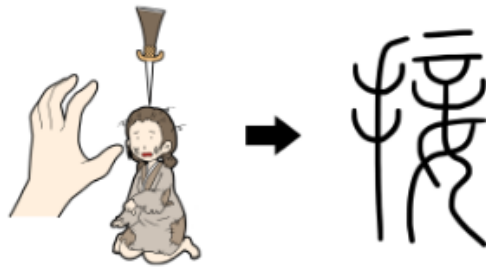


4(2)
-
171

회의문자①



接

이을 접

接자는 '접촉하다'나 '잇다', '대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接자는 手(손 수)자와 妾(첩 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妾자는 여자 노예를 그린 것으로 '첩'이나 '여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종을 뜻하는 妾자에 手자가 결합한 接자는 여종은 일도 많이 하지만 사람도 많
이 접한다는 의미에서 '접촉하다'나 '대접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접촉하다'라는 뜻 외에도 '가까이하다'나 '빠르다'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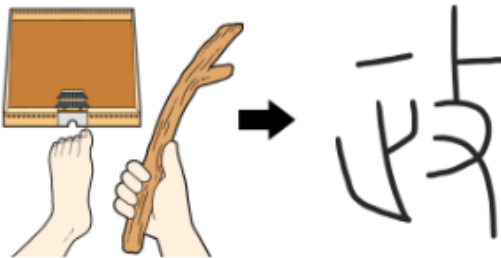
소전

接

해서

4(2)
-
172

회의문자①



政

정사(政
事) 정

政자는 '다스리다'나 '정사(政事)'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政자는 正(바를 정)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正자는 성(城)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正자에 攴자가 결합한 政자는 '바르게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다스리다'나 '정사'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政

금문

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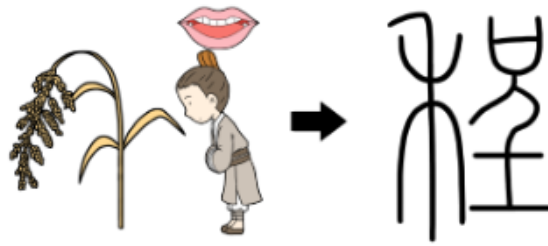
소전

政

해서

4(2)
-
173

회의문자①



程

한도/길[道] 정

程자는 '한도'나 '측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程자는 禾(벼 화)자와 正(드릴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正자는 허리를 숙인 채 공손히 말을 건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程자는 본래 곡물의 무게를 재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마치 등에 짐을 진 듯이 허리를 숙인 正자를 응용해 벼의 무게를 뜻하게 되었다. 곡식의 무게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측정되며 가격이 정해진다. 그래서 程자는 '헤아리다'나 '측량'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법칙'이나 '규정'과 같은 의미가 파생되었다.

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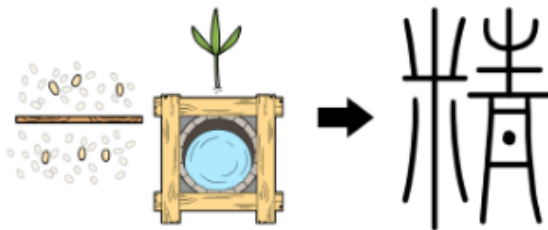
소전

程

해서

4(2)
-
174

회의문자①



精

정할 정

精자는 '깨끗하다'나 '정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精자는 米(쌀 미)자와 青(푸를 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靑자는 초목과 우물을 함께 그린 것으로 '푸르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푸르고 깨끗함을 뜻하는 靑자에 米자가 결합한 精자는 '깨끗한 쌀'이란 뜻으로 만들어졌다. 수확한 벼는 탈곡 후에 다시 도정(搗精)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정과정을 잘 거쳐야만 깨끗한 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 옛날에는 오로지 사람의 노동력으로 도정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精자는 '깨끗하다'라는 뜻 외에도 '정성스럽다'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되었다.

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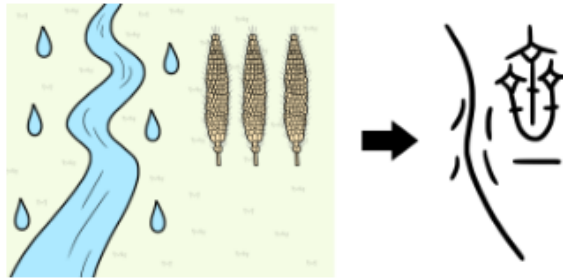
소전

精

해서

4(2)
-
175

형성문자①



濟

濟자는 '건너다'나 '돕다', '구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濟자는 水(물 수)자와 齊(가지런할 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齊자는 '가지런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濟자는 사실 강 이름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건너다'나 '구제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건널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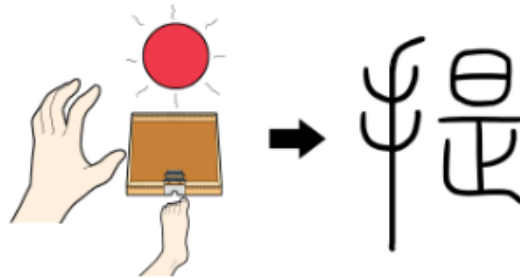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4(2)
-
176

형성문자①



提

提자는 '끌다'나 '제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提자는 手(손 수)자와 是(옳을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是자는 '옳다'나 '바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提자의 사전적 의미는 '끌다'이다. 그러나 提자는 주로 '제시하다'나 '돕다', '높이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 提자는 手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글자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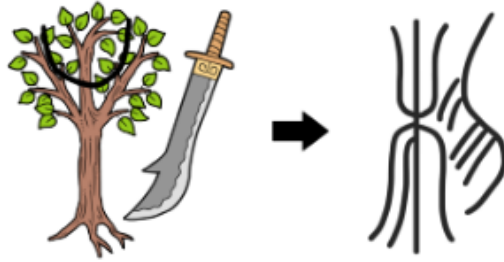
끌 제

소전

해서

4(2)
-
177

회의문자①



制

절제할
제:

制자는 '절제하다'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制자는 未(아닐 미)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未자는 木(나무 목)자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본래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뜻했었다. 이렇게 가지가 풍성한 나무를 그린 未자에 刀자를 결합한 制자는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모양을 다듬거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制자는 나무가 마음대로 가지를 뻗어 나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지금은 '법도'나 '규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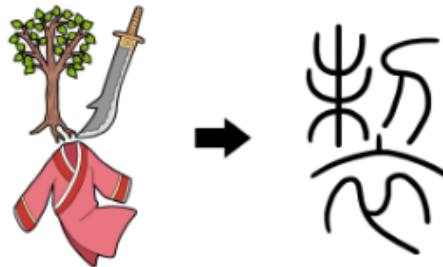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78

회의문자①



製

지을 제:

製자는 '짓다'나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製자는 衣(옷 의)자와 制(억제할 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制자는 나뭇가지를 다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다듬는 것을 뜻하는 制자에 衣자가 결합한 製자는 옷을 만들기 위해 가위질을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製자가 '짓다'나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본래는 옷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製자는 필요한 제품을 '제작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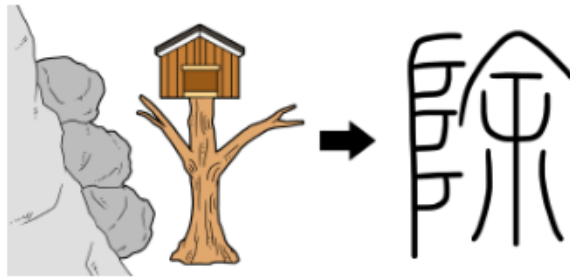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79

회의문자①



除

除자는 '덜다'나 '제외하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除자는 阜(β :언덕 부)자와 余(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余(나 여)자는 나무 위에 지어 놓은 집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阜자가 결합한 除자는 본래 집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뜻했었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내가 올라가야 하는 계단의 수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돌계단'을 뜻했던 除자는 후에 '덜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덜 제

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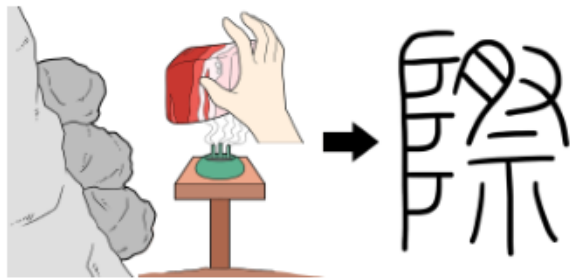
소전

除

해서

4(2)
-
180

형성문자①



際

際자는 '사이'나 '만나다', '닿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際자는 阜(β :언덕 부)자와 祭(제사 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祭자는 '제사'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際자는 본래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際자에 쓰인 阜자는 담벼락이나 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조음/가[
邊] 제:

際

소전

際

해서